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www.ddm2016.or.kr

허브 HUB

2019.12
Vol 11

사회복지법인 동안복지재단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Dongdaemun Welfare Center for Disabilities

03

08

12

14

16

18

Contents

Talk [가족공감톡] ① 장애인과 나란히 바꾸는 세상 / 03
② 자녀양육 Q&A '우리아이 궁금해요' / 06

通 [통하는지역] 지역주민과 함께 나란히 나란히 / 08

Tip [치료사꿀팁] 유 · 아동기 인지발달 / 10

美 [나누미축제] 흥인지문 바자회 시즌4 '소확행' / 12

Job [사회길잡이] ① 아듀! 직업적응훈련반 제주도 / 14
② 전환교육생 사회생활 준비 / 16

Hot [복지핫이슈]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 17

Dream [더드림식당] 운영이네 간식 '두부샌드위치' / 18

[후원 및 자원봉사 보고] / 19

발 행 일 2019년 12월(통권11호)
발 행 인 정은아 관장
편 집 기획홍보팀
편 집 위 원 강보희, 김은지, 김혜나, 노희균, 유성은, 최정윤
디 자 인 한국학술정보(주) 북토리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1] 지원사업

'장애인과 나란히 바꾸는 세상'

2019년 9월 6일(금)부터 8일(일)까지 2박 3일간 성인 발달장애인 15명과 또래 비장애인 15명이 친구가 되어 **'장애인식 개선 평화누리길 종주투어'**를 다녀왔습니다.(경기도 김포시 일대) 이번 종주투어는 **'장애인과 나란히 바꾸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참가자들은 출발 당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평화누리길 1~3코스를 무사히 완주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 고용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차별해서 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박 3일간의 종주투어를 통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한 발달장애인들이 종주투어를 완주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종주투어는 삼성전자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나눔과 꿈'** 사업의 일환으로, (주)동아쏘시오홀딩스와 (주)슈페리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또한 SBS 톡톡정보브런치에서 직접 취재한 영상은 9월 27일(금) 10시 30분에 방영되었습니다.

1) '나눔과 꿈'은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삼성전자의 기부금 100억 원을 지원받아 사회복지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총 1,106건이나 되는 사회복지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127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전문가와 교수진들의 2차 면접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17:1의 경쟁률을 뚫고 제3회 나눔과 꿈 사업 공모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um_in/221418579989

우리는 서로의 평범한 친구입니다.

참여자 송승현(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단순히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는 캠프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장애인 친구가 꽤 있어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도 장애 아동들과 함께했기에 편견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담당자로부터 “여러분은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친구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라는 말을 수차례 들으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길고 험한 여정 중 제가 짝꿍을 대하는 모습을 보며 짝꿍의 역량을 저도 모르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짝꿍은 서로 지칠 때 기다려주고 함께 발맞춰주며 2박 3일간 장애인을 대하는 저의 모습을 심도 있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계는 그냥 친구였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같이 밥도 먹고 함께 있으면 즐거운 ‘그냥 친구’ 말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즐겁게 장기자랑 연습을 하고, 서로 파이팅을 외치며 평화누리길을 걸었습니다. 노래 취향이 비슷해 힘들 땐 트로트를 부르며 매 순간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인해 일정이 많이 변하기도 했고 걷는 길이 험한 곳도 있어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 더 평범한 친구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한 장애인식개선 공익광고에서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발달장애인) 여러분의 평범한 이웃이 되고 싶습니다.’ 평화누리길 종주투어를 마치고 여전히 색안경 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평범한 친구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

참여자 김승욱

1코스를 걸을 때는 다리가 힘들어 중도에 돌아갔지만 2코스부터는 끝까지 완주하였습니다. 짝꿍과 같이 걷다 보니 아픈 다리가 한결 나았고 이렇게 조금씩 걷는 운동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떡볶이를 친구들과 직접 만드는 요리활동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먹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래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

참여자 고원준의 가족

원준이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종주투어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준이도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짝꿍과 많은 관계자들, 응급 시 함께했던 의료진은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든든했습니다. 출발 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조금 짧았던 점이 아쉬웠지만, 이런 활동의 기회가 자주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의 Q&A

‘우리아이 궁금해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질문들을 모아 성인기 자녀가 있는 보호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1.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반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 입학할지, 특수학교로 입학할지 고민이 됩니다.

A. 엄마의 눈높이에 맞추지 말고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착석이 가능하고 너무 심한 도전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일반 초등학교를 보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B. 초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라서 선생님께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소한 것까지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이용하다보면 통합학급에서 신경을 덜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들의 놀림대상이 되는 경우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평소 보여주지 않았던 행동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히려 특수학교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C. 모방이 잘 이루어지고, 호기심이 많고, 수용언어 2~3세 이상, 신변처리 가능한 아동인 경우 일반초등학교 진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학년 때 비장애아동과 학교생활하며 눈치껏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Q2. 초등학교 입학 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고 특수학급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 정보를 토대로 선생님이 좋다고 하는 경우 거리가 먼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6년 동안 학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B. 학교에 미리 몇 차례 가서 둘러보는 것이 필요해요. 학교 오가는 길을 함께 걸어보고, 화장실, 강당, 교무실, 도서관, 보건실 등을 미리 살펴보면 익숙해지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아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보다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내화를 신고 벗는 것도 처음 하는 일이니 가르쳐주어야 해요.

C. 1학년 때는 친구들이 장애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직접적인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너 잘 몰라?”,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답변을 고민하여 아이가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돕거나 선생님께 도움 받고 싶은 사항을 적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D. 학교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표현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비록 자녀가 언어표현이 힘들다 하더라도 글을 깨치고 진학하면 수용언어가 많이 향상됨). 예를 들어 학교, 복도, 운동장, 교실, 화장실, 선생님, 친구, 인사, 교과서, 알림장, 문구용품 이름 등이요. 신변 처리 방법이나 자기 물건 챙기는 것도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Q3.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가족과 친척들에게 처음에 어떻게 알렸는지 궁금합니다.

A. 있는 그대로 장애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신 장애아동의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말을 다소 못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눈 맞춤이 어려운 부분을 설명하였고 다른 아동에 비해 발달수준이 지연되어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B. 저는 아직 알리지 못했어요. 워낙에 왕래하는 횟수가 적어 굳이 알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C.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더 많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먼저 내 아이를 감싸줘야지요. 그대로 두면 많은 어려움을 혼자 견뎌야 하는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D. 아기 때부터 오픈했습니다. 자녀의 발달선상에서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도 함께 논의했어요.

Q4. 취업은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어디서 정보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A.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 직업전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수학급 선생님들과 상담하여 자녀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 연계되어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커리어플러스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B.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전부터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리스타가 좋다더라, 빵 만들기가 좋다더라 해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청소를 좋아하고 잘한다면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엄마의 용기도 필요합니다.

C. 취업준비는 지금부터 상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활기능이 취업기능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기능적으로 우수한 친구들에게만 정보가 제공되고 기회가 열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장애인부모연대의 각 지회,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각 지역의 구청과 시청, 장애인노동센터 등 시도만 하면 인터넷 검색으로도 정보수집이 가능합니다.

Q5.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왕따를 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A. 저희 아이는 일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특수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비장애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적응이 어려울 것 같아 가족과 상의하여 결정했습니다. 특수학급 선생님과 상담을 자주하여 아동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B.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어떤 학교는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분위기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선배 엄마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이나 소지품을 잘 살펴보고 가끔은 불시에 교문 앞에서 하교하는 모습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스몰스파크 (Seoul Small Sparks) 지원사업[1]

‘지역주민과 함께 나란히 나란히’

황금올팀

무장애지도팀

‘지역주민과 함께 나란히 나란히’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서울스몰스파크’**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사업 수행기관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한 점의 불꽃에서 불길이 타오른다.’는 의미를 담은 ‘스몰 스파크(Small Sparks)’는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으로, 작은 불꽃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장애·비장애 이웃 통합 활동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소모임에 소정의 금액(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한다면 문화여가, 나들이, 배움, 예체능, 봉사활동 등 어떠한 모임이든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나란히 나란히’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주민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연계팀
서연정 (070-4522-4760)

1)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 '서울스몰스파크'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만든 소규모 모임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 복지관은 2019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swf1004/221255864168

지역주민
'정인희' 님 / 다정팀

Q1. 서울스몰스파크 소모임의 이름과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A1. ‘다정팀’ 이라는 모임으로, 장애인 한분을 포함해서 4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김치나 반찬을 만들어 모임에 참여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함께 식사와 차를 마시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어요. 10월에는 반찬을 만들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지원했어요.

Q2. 서울스몰스파크 소모임에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A2. 저희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분은 허리가 많이 불편하지만, 늘 본인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고 계셔서 지역주민들에게도 감사와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 분과 모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Q3. 서울스몰스파크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뀐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A3. 모임에 참여하기 전에는, 장애인에게는 막연히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활동을 함께 하면서 장애인은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할 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너무 애쓰기 보다는, 함께 시장도 보고, 반찬도 만들고, 식사도 하는 나눔과 친교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필요한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Q4. 서울스몰스파크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변화된 것이 있다면?

A4. 서울스몰스파크 활동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애인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한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만남의 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으로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널리 알려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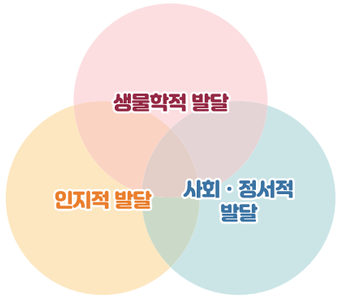
Q5. 서울스몰스파크란?

A5. ‘한마음 잔치’이다! 한자리에 모여 좋은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착한 이웃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유·아동기 인지발달이란?[1)]

1. 발달

발달 영역은 크게 생물학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 · 정서적 발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달은 서로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인지는 태어나면서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발달됩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알아보고, 색깔과 모양을 구별할 수 있고, 보고 들은 것을 기억하는 등 학습과 관련된 많은 활동들이 인지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영아기 인지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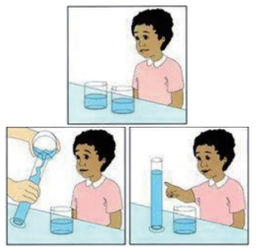
영아기 인지발달에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자극이 필요하며, 특히 언어적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많은 활동과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유아기 인지발달

유아는 지금 눈앞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건이라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동의 상징능력은 하나의 대상을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는 상징놀이에서 잘 나타나는데, 공을 음식으로, 컵을 모자로, 베개를 아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상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직관적 사고[2)]

유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각 중심의 판단을 합니다. 같은 크기의 컵에 같은 양의 물이 담겨 있을 때와 달리, 하나의 컵에 담긴 물을 좁고 기다란 컵에 옮겨 담았을 때의 양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관적 사고에서 '보존개념'이란 어떤 대상의 외양이 바뀌어도 양적 속성이나 실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자기중심적 사고[3)]

자기중심적 사고란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지각, 관점 등을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유아기 사고의 특징입니다.

1)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엄정애(2009). 유아교육개론. 양서원
2) 보존개념 https://blog.naver.com/bsj5729/60056104207
3) 자기중심적 사고 https://blog.naver.com/sportsafety/220943369765

③ 개념 형성을 통한 인지발달

장애아동들은 지적능력의 지연 혹은 다양한 경험 부족으로 인해 분류, 서열, 공간, 시간 등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3세부터 시작하여 유아들은 주변의 여러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합니다.

분류개념 : 여러 사물과 현상들을 그 속성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공통적인 범주를 찾아내는 능력
서열개념 : 여러 대상을 놓고 어느 것이 더 많은가 혹은 더 큰가를 비교하는 능력 혹은 어떤 일을 일어난 시간에 따라 순서 짓는 능력
공간개념 :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먼 곳, 가까운 곳 등 대상의 위치, 방향, 거리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인과개념 :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능력

2. 일상에서 다중지능 높이는 법[4)]

아이의 인지지능이 향상되길 원한다면 아래 방법을 이용해보세요!

지능 분야	지능 높이는 법
언어지능	연극 대본 큰 소리로 읽기 / 책이나 신문에 나오는 얘기를 일기나 수필로 재구성해보기 / 부모가 정기적으로 동화지어내 자녀에게 구연해주기
공간지능	장소와 건물 등 사물과 인물을 연상해 기억하는 습관 들이기 / 정보나 도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 가구배치를 할 때 그림을 그려 계획 세워보기
논리수학지능	생활 속에서 돈 계산 등 셈을 직접 해보기 /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신문기사 즐겨 읽기 / 추리소설을 읽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기
신체운동지능	다소 복잡한 동작과 기술을 요하는 레저스포츠 익히기 / 스트레칭 습관을 들이고 자신만의 동작을 만들어보기 / 텔레비전을 보며 연예인 등의 동작 따라해보기
음악지능	쉽고 대중적인 악기를 골라 연주법 익히기 / 음악과 동작이 결합된 운동이나 노래, 악기를 배워보기
인간친화지능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 기르기 /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자기성찰지능	자기계발 계획을 세우고 실천 여부 점검하기 / 매일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고 반성하기 /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떠올려 대안 생각해보기
자연친화지능	산에 오르거나 자연현상이 있는 곳에 가서 경험 기록해보기 / 나무, 애완동물, 꽃 등을 기르며 관심 갖기 / 다큐멘터리나 자연과 환경에 대한 책과 자료를 가까이 하기

4) 문용린(2009). 지력혁명. 비즈니스 북스

흥인지문 바자회 시즌4

‘소박하지만 확실히 행복한 바자회(소확행)’

2019년 10월 18일(금) 흥인지문 바자회 시즌4 ‘소박하지만 확실히 행복한 바자회(소확행)’을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복지관 1층 잔디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를 반겨주듯 포근하고 따뜻한 날씨가 바자회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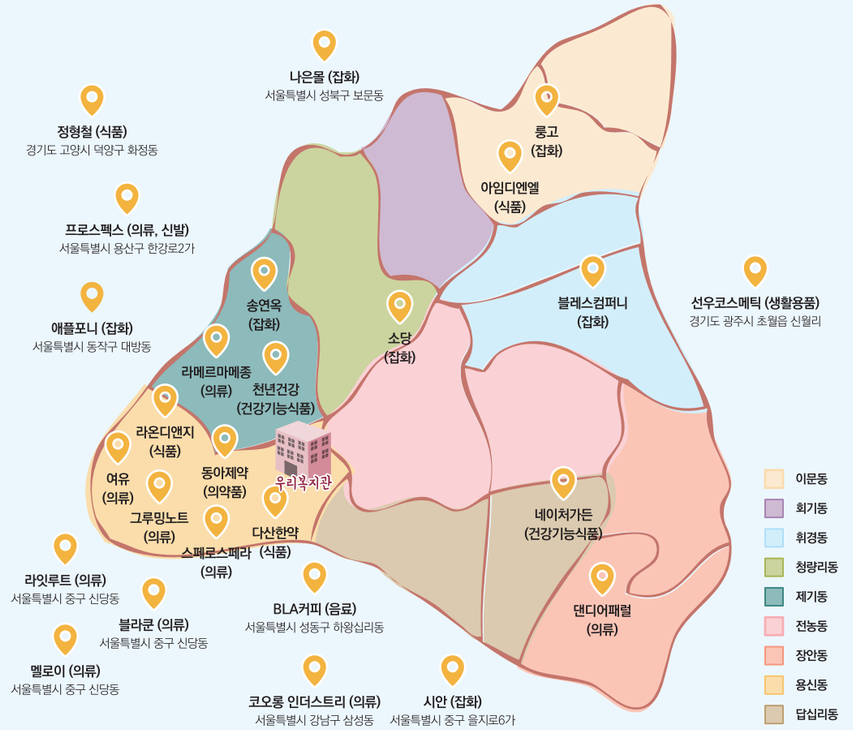
특히 영양만점 야채김밥, 노릇노릇 해물파전, 매콤달콤 닭강정, 잔치국수, 순대, 어묵 등 간편하면서도 맛깔 나는 먹거리 부스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시계, 모자, 생활용품 등 각종 잡화는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코너인데요. 이번 바자회에서는 특별히 사과, 간편 떡볶이, 건강음료, 신발 등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의류 판매대에서도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여 이곳을 들렀다하면 누구나 양손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드림놀이터 안팎에서는 네일아트,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3D 풋스캔 측정, 무료 건강검진으로 바자회를 알차게 채워주었습니다.

10시, 12시, 14시, 16시, 총 네 번의 경품 추첨 시간도 빠질 수 없죠!!

이번 행사를 위해 코오롱 인더스트리, 프로스펙스, 동아제약, 라온디앤지, 네이처가든, 블레스컴퍼니 등 지역 내 다수 업체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풍선아트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119의용소방대, 숭의여자대학교 다솜동아리는 단체자원봉사로 바자회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흥인지문 바자회를 열어 물품 및 먹거리를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동대문구 내 저소득 장애인의 겨울나기 지원사업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흥인지문 바자회의 후원업체를 소개합니다.



3년의 결실을 맺는 순간

아듀[1]! 직업적응훈련반 제주도

2019년 직업적응훈련생 15명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2박 3일간의 여름캠프! 여름이면 곳곳에서 무수히 많은 캠프가 열렸고 훈련생들이 그동안 참여했던 문화여가활동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사뭇 달랐습니다.

2016년 4월,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한 후 직업적응훈련생들이 처음 모인 때는 바야흐로 6월이었습니다.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하는 점이 힘들기도 했지만 차츰 적응해나갔습니다.

직업적응훈련반에서는 성인발달장애인들이 3년간 출퇴근하며 크게 세 가지의 훈련을 받습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돕는 개인/사회생활적응훈련, 구직방법 및 초기 직장생활에 대해 교육하는 직업준비훈련,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유지능력향상훈련으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손 근육과 작업 인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 활동을 합니다. 작업물은 엠에스코리아, 다이소, 장군사 등에 납품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업체 견학,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모의 면접, 다양한 직무 체험을 합니다. 또한 우리 복지관 1층 '더 드림 카페'에서 매일 직무훈련을 받습니다. 기계를 사용하여 음료를 제조하고, 손님을 반갑게 응대하고 주문을 받으며 사회성을 높입니다. 더불어 식품의 유통기한을 구별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청소로 카페를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취업 후 자신이 번 돈을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금융교육도 듣습니다.

1) 아듀(Adieu) : 프랑스에서 비롯된 언어로,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훈련실에서 작업활동

생활금융교육 실습

사업체 견학

서비스 직무훈련(음료 판매, 카페 위생관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차츰 성장해나가는 중, 훈련생들 모두에게는 하나의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작업훈련(활동)으로 번 돈은 어떻게 하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3년간의 짧지 않은 시간동안 직접 번 귀한 돈이기에, 훈련생들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훈련 과정이 끝나는 시점에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내용을 3년 후인 2019년 6월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행을 어디로 갈지, 무엇을 구경할지, 무엇을 먹을지, 훈련생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투표하였습니다. 자치회의로 세운 계획대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배를 타고, 재미있는 서커스 구경을 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제주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여행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훈련생들은 작업 활동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신이 빠르게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담당 선생님이 칭찬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로 수익금을 얻고 다른 훈련생들과 캠프도 갈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3년간 수고 많았습니다!

< 직업적응훈련반을 이용한 소감 한 마디 >

"작업 활동이 가장 재미있어요. 너무 좋아요." / "좋았어요. 특히 노래방 활동과 성교육이 너무 좋았습니다." / "다른 곳 가서도 잊지 못할 일이 많았습니다. 열심히 훈련하여 꼭 바리스타가 되겠습니다." / "다른 훈련생들과 말하며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고, 카페업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직업적응훈련반에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해주시는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 "경희여자고등학교 학생들(봉사자)과 외부활동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재미있었습니다. 직업적응훈련반에 같이 다니는 훈련생들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을 거예요."

졸업을 앞둔 전환교육 학생들이 해야 할

사회 생활 준비

'전환교육' 이란?

졸업 예정인 특수학급 고등학교 3학년 장애청소년들이 졸업 후 예비 사회인으로서
스스로 진로를 계획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환교육 선·후배 간담회

전환교육 2기 졸업생(청량고)이 직접 참여하여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질문 1) 면접 어렵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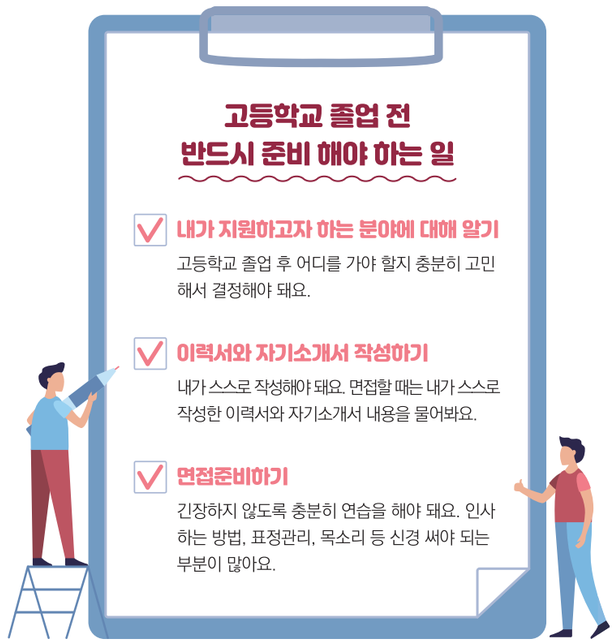
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선생님이랑 꾸준히 연습하니까 됐어요. 저도 면접을 한번에 붙진 않았어요. 두 번이나 떨어졌을 땐 많이 상처도 받았는데, 열심히 노력하니까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질문 2) 직장생활하면서 좋은점과 힘든 점이 뭐예요?

좋은 점은 일하면서 나를 인정해주는 동료가 있어서 좋고 월급도 용돈보다 많이 받아서 좋아요. 힘든 점은 동료들과 함께 빵 포장을 해야 하는데 잘 맞지 않을 경우 힘들어요.

질문 3) 월급 받으면 뭐해요?

평소에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봐요. 학생 때는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했는데, 이제는 눈치 안보고 내가 직접 번 돈으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1)]

2019년 10월 8일(화) 서울시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도
3년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작합니다.

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란?

방과 후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청소년 발달장애학생들이 장애인복지관 등 시·군·구로부터 지정받은 지역 내 시설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며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②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만 12세 이상부터 18세 미만까지,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 및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돌봄 취약가구의 자녀 또는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을 우선 선발합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③ 무엇을 이용할 수 있나요?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 자립생활준비, 문화체험, 자조모임 등 크게 5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학생이 이동하거나, 서비스와 연계된 학교로 제공인력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를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 선정합니다.

④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는 최대 3시간(16~19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말에는 최대 4시간(9~18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44시간 내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방학기간에도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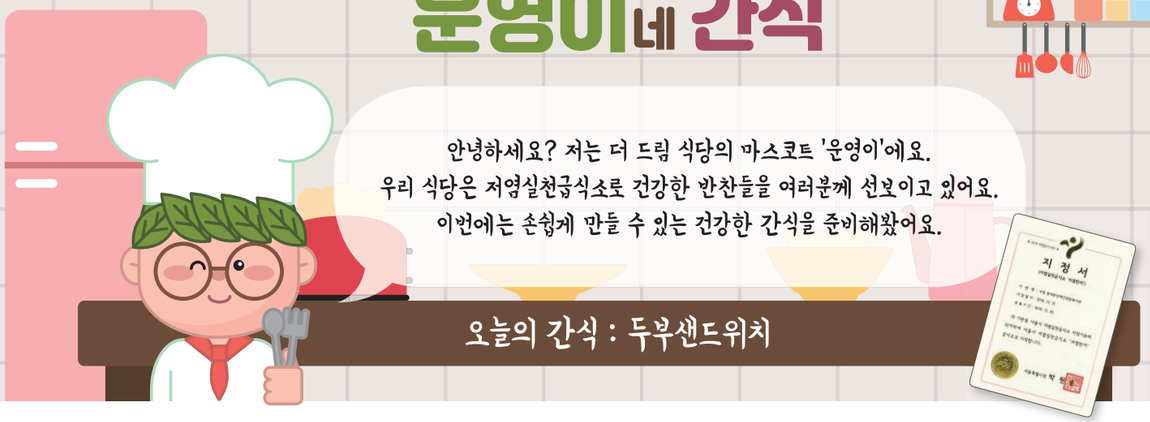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⑤ 관련 법률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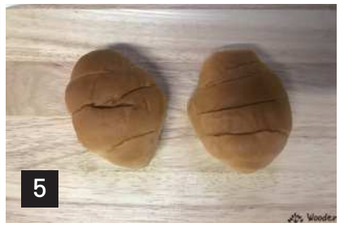
1)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서울속보〉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http://blog.seoul.go.kr/221673846679

운영이네 간식



안녕하세요? 저는 더 드림 식당의 마스코트 '운영이'에요.
우리 식당은 저염실천급식소로 건강한 반찬들을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어요.
이번에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의 간식 : 두부샌드위치



재료 준비

닭가슴살(1쪽), 오이(1/2개), 당근(1/3개), 두부(2/4모), 모닝빵(4개), 소금, 후춧가루, 마요네즈, 머스터드 소스

두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① 두부의 유통기한은 14~15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섭취기간을 고려하여 구입해주세요.

② 남은 두부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깨끗한 물과 소금 조금을 넣은 뒤 5도 이하에서 냉장 보관해주세요.

③ 외부에 노출된 두부는 그냥 보관하기 보다는 뜨거운 물에 한 번 데쳐서 보관하면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오이와 당근을 깨끗하게 씻고 곱게 채 썰어 준비합니다.
2. 닭가슴살은 삶은 뒤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버무립니다.
   * 머스터드 소스도 추가되기 때문에 간이 너무 짜지 않게 해주세요.
3. 두부는 으깬 뒤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합니다.
4. 그릇에 닭가슴살, 오이, 당근, 두부와 마요네즈를 넣어 골고루 버무립니다.
5. 모닝빵을 잘라 머스터드 소스를 바른 뒤 위에서 만든 속을 채웁니다.
6. 부드러운 두부와 아삭한 채소, 쫄깃한 닭가슴살이 어우러진 건강한 간식이 완성~!!

두부의 효능

① 에스트로겐 성분이 들어있어 폐경기증후군 완화에 도움이됩니다.
② 뇌를 활성화하고 뇌의 노화, 치매예방에 효과적입니다.
③ 고단백 저칼로리 음식으로 다이어트 식품으로 매우 좋습니다.
④ 칼륨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성장기의 어린이나 환자의 영양식으로도 좋습니다.

후원 및 자원봉사 보고

후원 QR코드 ➡

· 개인 후원자 (2019년 6월 ~ 2019년 10월)

강보희 강 욱 구용모 권가희 권성일 김경미 김경섭 김미정 김유리 김은지 김재형 김창일 김현진 김혜나 김효진 문휘람 박윤진 박종범 박준서 박찬홍 배원석 서명희 서민주 서연정 신동훈 안이슬 안호태 양승희 오소연 유성은 윤민석 윤지훈 윤현숙 이미영 이상오 이예은 이정현 이정훈 이혜정 이혜찬 이효진 임병준 임형범 장범희 장석철 장운환 장혜원 전정환 정민권 정봉주 정은아 조덕희 조득희 조재현 최민근 최정윤 홍석원

· 단체 후원자 (2019년 6월 ~ 2019년 10월)

㈜국민은행동대문패션타운지점 ㈜웰콤퍼블리시스월드와이드 LG정보통신 강동단기보호시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경희여자고등학교 ㈜다기획 다운복지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문장애인복지관 동안복지재단 ㈜레오버넷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성민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숭의여자대학교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재)해피빈정립회관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신화경제연구소 ㈜엘디아이국토개발 ㈜원전기공사 청량고등학교 태화복지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동부지사

· 물품 후원자 (2019년 6월 ~ 2019년 10월)

강도규 강상미 강석남 강영민 강태구 강태윤 고성일 국윤진 그루밍노트 금종화 김동현 김민철 김성환 김영중 김은아 김재은 김정우 김지원 김창민 김충환 김태영 김태원 김현범 김혜란 나은 남우철 노두환 댄디어패럴 동대문구청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주)동아제약 동안복지재단 동안제일복지센터 라멜마메종 ㈜라잇루트 멜로이 모치영 박경도 박경수 박민식 박상우 박상현 박영삼 박해민 방형민 백승호 범수관 블레스컴퍼니(주) 비엘에이커피 삼성소리샘복지관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원길 석무징 선금수 선우코스메틱 성우상사 ㈜소당 송연옥 송영찬 스페로스페라 시안 아트스튜디오 여유 애플포니 양해창 유근우 유니 유창오 이병근 이세미 이승일 이영숙 이원희 이정훈 이호성 이효정 이후엽 임영택 임정규 임혜라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정형철 조정훈 조한나 주범석 ㈜네이처가든 ㈜라온디앤지 ㈜룽고 ㈜아임디엔엘 차동주 차성준 차은주 천년건강 천태녕 최명곤 최승혁 최치혁 최형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한현진 홍영기 홍콩반점0410 잠실신천점

· 해피빈 후원자 (2019년 6월 ~ 2019년 10월)

두목 junghun6 깜장고양이 숨은천사 가햐 차오 청SOL 스윗라벤더

· 후원금 정산내역 (2019년 6월 ~ 2019년 10월)

후원금 수입		후원금 지출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비지정후원금	36,183,200	직업지원사업비	3,053,750
		지역연계사업비	2,546,930
		기획홍보사업비	2,979,605
		가족평생교육지원사업비	1,084,040
		권익지원사업비	85,500
		수용비 및 수수료	227,230
지정후원금	6,590,000	지정결연사업	1,490,000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	425,000
		일시지원(긴급지원)	3,990,000
		동아쏘시오그룹지원사업	4,829,800
이월금	45,753,283	차기이월금	67,814,628
합계	88,526,483	합계	88,526,483

· 자원봉사자 (2019년 6월 ~ 2019년 10월)

강건모 강동훈 강수남 강수민 강석진 강영이 강윤도 강태윤 강하늘 고서정 고정자 곽민후 곽태선 권나연 권다예 권서연 권세빈 권오현 권유찬 김경택 김규태 김나영 김도헌 김도훈 김동숙 김명숙 김 민 김민서 김병준 김서현 김선영 김성진 김성훈 김소연 김소자 김수경 김수안 김승현 김시온 김예원 김용연 김우주 김유민 김윤경 김윤상 김윤정 김정록 김정하 김재훈 김재희 김주연 김주영 김지수 김지승 김지연 김지영 김지환 김지훈 김진국 김진호 김진희 김종린 김준영 김채경 김채원 김태임 김해보 김현우 김현제 김현진 김형규 김형선 김하빈 김하정 김홍남 나하민 남예진 남윤석 노미래 노지영 류인성 마서연 맹정순 문종석 민천기 박경희 박기래 박나현 박도욱 박민재 박상원 박상현 박선주 박성관 박성민 박세환 박소정 박시하 박연석 박연정 박정우 박정화 박 준 박준서 박지성 박지연 박채환 박 철 박현욱 박헌수 박효정 반세민 배근서 배슬기 배양란 배정현 백은지 백순원 백세빈 백승우 변기용 서민기 서민지 서진희 서현선 서혜인 성경수 성아현 소예준 손수혁 손예은 손유신 송승현 송요덕 송유빈 송하성 순대성 신영원 신우진 신정윤 신지원 신창민 신현아 신희선 심지후 심필승 아나르 안병호 안세준 안은희 안태영 안 현 양우진 양재현 엄소현 엄하용 오수현 오승철 오정안 옥상현 원동호 원상진 원태성 위효선 유도현 유성일 윤기준 윤정욱 유지웅 유병용 윤수정 윤예빈 윤예준 윤지수 윤채원 이광희 이근웅 이남영 이다현 이동수 이동훈 이다빈 이미소 이미연 이민우 이상례 이서경 이서현 이소연 이수현 이승우 이승주 이승효 이승훈 이안덕 이예림 이예소 이예원 이옥엽 이유빈 이윤선 이재석 이재영 이재인 이정준 이주영 이지원 이지윤 이지현 이차돌 이창범 이채원 이한나 이한용 이현빈 이현주 이혜임 이희진 일마즈알레이나 임규민 임미정 임여정 임진호 임형주 장강원 장경진 장민준 장숙이 장예준 장윤수 장진우 장현빈 장현준 장호용 전도윤 전제훈 전준영 정민정 정병태 정양규 정영은 정영진 정원영 정인석 정재은 정지영 정지혜 정해솔 정해훈 정현숙 조권주 조나연 조수혁 조예승 조일래 조재현 조정빈 조현준 조혜리 조혜림 조혜영 조희람 주낙선 주하원 주한식 지승혁 진태우 진하민 차현숙 최동혁 최문성 최민근 최보윤 최수민 최수연 최승연 최영옥 최은진 최은진2 최종수 최주언 최준수 최진숙 최진희 최하은 최현숙 최현진 최혜선 최희선 추승현 하지원 한가연 한상열 한서윤 한찬호 허강인 허태현 허한나 허정현 홍나경 홍덕순 홍도경 홍순옥 홍준영 홍준표 홍지혜 황기성 황영준 황재성 황제민

·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후원	일시후원	국민은행 005701-04-198581 (예금주 :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정기후원	매월 후원금을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이체
	물품후원	의류, 생필품 등 사용이 가능한 물품 후원
자원봉사	일시후원	행사, 나들이 등 진행 보조
	정기후원	각종 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 등 보조
	정기후원	배식 보조
	물품후원	교육, 문화, 체육, 음악 등 재능 나눔

➡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제88조의 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사랑의 메시지 트리

우리도 이곳에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하며 뿌듯 했어요.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 할게요!

단체봉사자
경희여고 봉사동아리 '너나들이'

기타수업 봉사를 하고 있어요. 작은 재능 나눔이 누군가에게 행복이 된다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재능기부 음악치료사 곽태선

복지관과 함께한 활동은 항상 감동이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복지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업후원자 동아제약 김경태

바자회 현수막을 보고 처음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보상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개인후원자 송연옥

복지관에서 작업하고 외부활동하고 캠핑하고 여가활동하면서 재미있었습니다. 복지관을 정말 사랑해요❤

직업적응훈련반 이용자 안진아

우리 아이가 치료 이용하면서 많이 성장했어요. 혼자보다 복지관과 함께여서 힘이 납니다!

아동치료 이용자 이명훈

장애인운동실에 올 때마다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매일 이 시간이 기다려져요.

장애인운동실 이용자 유영자

다가올 2020년에는 어떤 가슴 뛰는 꿈을 꾸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복지관 직원 일동

& 검색창에서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검색

• Tel : 02-927-0063 • Fax : 02-927-0069 • E-mail : ddm2016@daum.net